

만남

2021년 12월
통권 20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한 우리입니다. 한글

20050334_ShibukawaKIM Gwang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빛과 소금의 소명 의식-----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6
이 달의 전례	-----	17
본당 살림살이	-----	18
희망 샘터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소명 의식

마태오 복음사가는 소금과 빛의 상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소명의식을 자각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나 빛 같은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산상설교(마태 5장~7장)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영에서 살 때 굴양식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양식장에서 가져온 굴을 잔뜩 쌓아놓고 하루 온종일 까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빼고 남은 굴껍데기의 양이 엄청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내용물이 빠져나간 껍데기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적당한 장소에는 어김없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굴 껍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습도가 상승하게 되면, 염분은 사라지고 불순물만 남게 된답니다. 곧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니 아무데나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입니다. 아무리 품질이나 바탕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변질되고 부패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알맹이가 빠져나간 굴껍질이나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 설교의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과 이웃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모범이요 모델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이웃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소명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화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1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가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가 나눔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10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 3 16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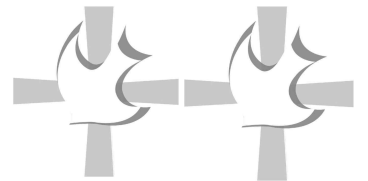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나눔의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온통 ‘기쁨’으로 초대하는 기원과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파동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요르단 강변에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세례자 요한의 엄한 권고에 의해서조차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도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러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해주신다고 선포함으로써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판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적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특히 사랑으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매순간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군인이 되었던 세금징수원이 되었던 법률가가 되었던 교황이 되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가 머물며 활동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8.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단어, 자비

오랫동안 교회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인 진리의 중요성에 우선하여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의와 규범에 맞추어 자신의 모습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금하고, 저것은 죄가 된다.’는 규정에 매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비, 곧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교회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동반하고, 용서하며,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아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 23세 교황님은 복음의 진리를 일컬어 ‘자비의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연설’ 참조). 이는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받는 인간의 상처와 가난을 끌어안아 주며 치유해 주는 복음과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거대한 이상에 대해 말하지만, 이 이상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설파되어야 옳다고 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아가 교회는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다시 말해, 교회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데려와 사랑으로 치료한 뒤 다시 건강을 되찾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야전 병원의 역할을 해내기를 촉구하십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교가 가야 할 길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전쟁통과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는 어머니의 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관심과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자비는 하느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또한 자비는 하느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단어이자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자비의 얼굴』, 2항).

바로 여기에 교회가 깊고 진중하게 양심을 성찰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발타사르는 “자비란 참된 정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 곧 성부·성자·성령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결합된 친교의 하느님이십니다. 그 친교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자.’는 말은 너무 엄청난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터무니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꼭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사랑을 나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자.’고 말하기보다 정확하게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자.’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까? 교회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하시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니까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느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지속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친교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친교도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나누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교의 예를 들자면,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 같은 미사와 전례, 그밖에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원조와 봉사,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덕의 실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친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친교의 행위, 친교의 삶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하는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함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의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모임으로 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함께 모임으로 더 큰 친교로의 준비와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나라에도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도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교회법이 규정한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된 ‘요한 바오로 2세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1,752개조의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신자들의 의무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교회법 1247조)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무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예수 부활 대축일(3월~4월경),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입니다.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989조)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교회법 920조)

세례 받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자주 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단식과 금육을 통해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대축일이나 명절 등 별도로 용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금하고, 만18세 이상 60세까지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씩 단식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교회법 1262조)

모든 신자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 교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익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059조)

그리스도 신자의 혼인은 반드시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로서 혼인하려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성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

제 시아버지는 아주 돈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신념이 강한 분이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돈 돈’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아버지의 과거를 저는 잘 알기에 시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 집안이 너무 가난해 공부를 못하시고 평생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신 분입니다. 늘 자린고비 소리를 들으면서도 먹지도 입지도 않으시고 저축해 부자가 되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기 그지없으십니다. 쓰지 않고 모으시고, 모은 돈을 볼 때만 행복해하시는 시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 “배부른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제가 배부른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잘 입고, 잘 먹으며, 잘 살고 싶은 욕구이지요. 그런데 생리적 욕구는 어떤 다른 욕구보다 강력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종을 번식하고, 창조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독재자들이 예전에는 매로 국민을 다스리려 했는데, 지금은 국민을 배고프고 가난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지배 방식에 길들여지게 한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적정 수준보다 약간 높게 채워줄 때 국민들은 그 정부를 하느님처럼 여기기에 아예 처음부터 국민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그 밑바닥에 자기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던져줌으로써 자신들을 신격화합니다.

이처럼 기본 욕구가 충족될수록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은 ‘돈’입니다. 현대인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며, 돈이 있어야 교육을 받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어디를 가고 먹고 입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사람에게 연료 같은 필수품입니다.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폐차가 돼버릴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어 돈을 벌려고 하기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질까요? 이 물음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반반입니다. 우선 찬성하는 심리학자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주관적 만족감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있으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에 돈이 많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외줄 타듯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반대 측 주장은 어떤가요? 돈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행복한데, 그 감정이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금방 그런 현실에 적응돼 심드렁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쁜 부인을 얻어도 몇 년 지나면 시들해지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갈증 날 때의 맥주 한 잔과, 계속해서 마시는 맥주의 맛이 같지 않은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은 직원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심드렁해지고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행복을 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원칙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일에서든지 희망을 가질 것.”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행복이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 말처럼 의미 있는 삶에 몰두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매님 시아버지께서 지금처럼 돈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한다면,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고령장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 마음이 가난한 사람(정하돈 안나 마리아 수녀님)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 5,3)이라고 하신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희망 전부를 오로지 하느님께 두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하고 스스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하느님께 의존된 존재로서 자신의 한계성과 유한성을 깊이 인식합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참 모습을 알게 될 때 진정 겸손한 자, 작은 자, 빈자 곧 가난한 자가 됩니다. 겸손만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허한 자세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이며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 손에 온전히 내어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삶의 변화, 역경, 모순 앞에서도 결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를 확고히 믿으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의 최우선적인 부는 예수님이며 복음에 담긴 가치들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가난은 마음의 해방, 사람과 사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의 목표는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 가난은 해방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교적 자세로서 가난은 확신에 찬 사랑으로써 고양되며 또 그 사랑의 조건이 됩니다.”(S. Galilea). 마음의 가난은 내적 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포기는 포기한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희망하는 데서 비롯될 때 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이 곧 자유와 사랑을 깊게 하기 때문에 해방을 느끼게 하여 인간답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가난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가난과 구체적인 형태의 초연함, 검소한 생활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실질적인 가난이 따르지 않는 마음의 가난은 공허한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의 가난과 내적 포기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지향하는 물질적 가난은 순전히 상대적입니다. 외적으로 가난한 생활양식은 바로 내적 가난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될 만한 모든 것들, 즉 물건, 사람, 상황, 계획을 포기해야 내적 가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송한 ‘가난한 사람’은 외적 가난을 통해 내적 가난 또는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인간의 깊은 변화와 근본적인 정화를 내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매어 사는 부자유한 삶을 내적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초월적이고 무한한 것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 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든 없든 간에 진리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참된 부는 내적 자유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집착의 대상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버려야 할 것은 염려,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집착, 애착을 벗어나 초탈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무능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 사랑에 내어맡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동양사상의 무(無)는 아무 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닌 텅 빈 충만 또는 충만히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가의 수행에서 ‘무’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집착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영혼은 내적 자유를 얻습니다. 비움, 무, 포기 같은 가난의 수행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철저한 고독과 갈등, 훈련을 수반하는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화해와 일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정화와 일치는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한량없는 부요함에 참여시킵니다.

구체적인 생활방식인 가난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은 하느님의 개별적인 은총이며 부르심으로써 사람 혹은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각자의 교육, 특정한 문화와 사회, 사회적 위치, 직업,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삶의 기준을 결코 하나의 형식으로 함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마다, 비록 동일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매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마태 19,21) 당신을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부단한 쇄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유일무이한 표본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 11,28-30). 이 말씀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예수를 본받는 이들에게 주는 행복의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과 단순한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함께 나누십니다(마태 11,25 참조).

★ **고요 안에서 의 깊은 대화(서보호 라이문도 신부님)**

하느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독백처럼 혼자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참다운 대화를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사람 간의 만남과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부모님처럼 친구처럼 쉽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분이면서도, 너무나 크고 신비한 분이시기에 그 분과의 만남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좀 더 깊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바다이시면 인간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대일의 관계로 만나려고 하니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스며들어야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품으려 하거나 떨어져있는 상태로 바다를 느끼고 알려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맡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 내 앞에,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느끼며 대화를 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솔직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고요? 주님께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기보다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온갖 분심, 걱정, 불안, 의심 등이 마음에 가득해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러한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요함에 머문다.’, ‘내적 침묵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기도의 중요한 자세인 ‘기다림’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마음으로 들으려 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떠한 분심도, 걱정도, 불안도, 의심도 없이 오로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상태가 내적인 고요함, 내적 침묵 상태이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이끄심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마리아처럼 언어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은 같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에 어려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처럼 독백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곤 합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쉽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하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주님과 만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개방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 주님은 항상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대화는 어떤 큰 울림같은 것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자신의 부족함, 좋은 결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따뜻한 느낌, 사랑스런 느낌, 포근하면서도 밝은 느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특별한 깨달음이나 느낌이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훌륭한 열매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으로 충만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기도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성미	16일	노아	박노아
2일	비비안나	남궁현	16일	아델하이드	진윤희
3일	비앙카	허미란	25일	마누엘	김무진
4일	크리스티안	허채열 김호현	25일	엠마누엘라	허선애
6일	아셀라	김보경	25일	노엘	이동훈
8일	마리아	박순옥 이순자 이영희 홍미옥	26일	스테파노	이명원 정순문 김재원 박동윤
13일	루치아	배수현 김지희	29일	사비네	이금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춘자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5일	아나스타시아	김영숙(B)
2일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노엘라	김유경(H)
13일	루치아	최예린(B) 문정자(B) 강은지(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13일	오틀리아	김선우(O)	26일	스테파니	이경숙(H)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28일	돔나	김효선(H)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481	211	153	88
12일	90	219	159	89
19일	95	216	164	93
25일	107	102	109	101
26일	114	340	166	113

❖ 12월 전례 봉사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2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19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4일	한말조(마리안나) 김한솔나(리드비나)		주일학교	X
25일	백정선(토마스 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26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 1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1월 21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심동근,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최장용, 한말조,

* 계좌(11월 15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허선애, 김유석, 김원자, 김치수, 김효정, 남궁춘배, 백정선, 송문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김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이영원, 현영애, 허채열, 김진호, 배성우, 이철우, 김정숙 Eillinghof,

* 50주년 행사 찬조금

강일남, 허길조, 강순행, 한말조, 함부르크 한인회, 카멜 공동체, 브레멘 공동체,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오슬로 공동체, 서선영, 방미석, 윤용기, 남창순, 홍종각, 김진호,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1일 자 통장 잔액은 31.398,10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심천

믿음에
심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 야고 2.17 -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잠언 16.3 -

뉴욕 브루클린의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울음소리를 터트렸습니다. 엄마 나이 14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14살의 어린 엄마와 함께 거리를 전전했고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노숙자 쉼터에서 머물렀고 때로는 노숙자들의 위협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새 그녀의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오프라 윈프리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마약과 매춘부, 냄새나는 길거리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난 그녀였지만 언제나 희망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한 뒤 냄새가 나지 않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녀를 보고 거리의 포주들이 놀렸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무슨 학교야?”, “애 나랑 같이 일어나 하자.”, “전 대학에 갈 거예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대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들어가 운명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며 매달 네다섯 권의 책을 읽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사회단체와 장학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절박했던 소녀의 편지에 감동한 단체들은 그녀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녀는 순조롭게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등 미국 전역 20여개의 명문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에 감명 받은 하버드대학의 입학 담당관은 “당신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부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마침내 하버드라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퍼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한 번도 가난을 핑계대지 않았습시다. 가난이 결코 변명꺼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노숙자였던 그녀의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불행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시다. 2009년에는 꿈에 그리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으며 2013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워싱턴 D.C의 교육 공무원이 되어 홈리스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와 성탄시기가 12월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 12월 12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St Olaf 성당에서 15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소는 Speckenreye 41 b, 22119 Hamburg입니다.
3. 성탄 대축일 미사를 안내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는 20시 만남성당 강당,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는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ADVENIAT 2차 헌금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4. 12월 30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송년미사와 음식 나눔은 올해 없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2022년 1월 1일 토요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5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사 후 떡국 나눔은 없겠습니다.
6. 12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행사에 참여하신 지방공동체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방공동체 12월 미사는 계획에 따라 있으며 미사 후 나눔은 없겠습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t.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2	목			
3	금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4	토			브레멘 공동체
5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6	월	성 니콜라오 주교 기념일		
7	화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설		
8	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9	목			
10	금			
11	토			오스나브뤼크
12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성 올라프 성당	
13	월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14	화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수			
16	목			
17	금			
18	토			하노버 공동체
19	일	대림 제4주일		
20	월			
21	화			
22	수	동지		
23	목			
24	금		성탄 전야 미사(20:00, 강당)	2차 헌금
25	토	주님 성탄 대축일	예수 성심 성당(15:00)	2차 헌금
26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1월 1일까지)	
27	월	성 요한 복음사가 추일		
28	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수			
30	목			
31	금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